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 (218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2)

만세동산 등 오색물결 '완연한 가을'

입력 : 2004. 10.29. 00:00:00



▲만세동산 등 오색물결 '완연한 가을'새끼오름에서 바라본 만세동산. 동산 너머에 제주시 서쪽과 애월읍 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새끼오름 만세동산

한라산에도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영실 분화구 가장자리에는 오색의 단풍이 물들고 있어 곧 가을을 만끽하려는 등반객이 이 골을 매울 것이다.

영실 B코스를 따라 탐사에 나섰다. 누운오름과 새끼오름, 만세동산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영실 B코스는 70년대까지만 해도 한라산의 주 등반로였다. 이 등반로는 기록으로 볼 때 한라산의 등반로중 가장 먼저 개설된 코스였다. 역사속에 등장하는 선인들의 한라산 기행도 대부분 이 코스를 이용한 등반이었다.

영실 휴게소에서 동남쪽 능선을 타고 가는 이 등반로 주변은 한라산의 가장 빼어난 경승을 간직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을 부르는 이름이 없다. 다만 영실 오백나한 정도로만 부를 뿐이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물은 이름을 붙여야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탐사팀은 이곳을 '겐테의 언덕'으로 부르기로 했다. 옛 어른들도 이곳에 이름을 붙이기는 했다. '좌선암(坐仙岩)'이 그것이다. 하지만 좌선암은 특정한 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대를 지칭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겐테의 언덕'은 독일인으로 지리학박사이면서 당시 동아시아 특파원이기도 했던 지그프리트 겐테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한라산 대탐사 첫 회에 이미 소개된 바 있지만 그는 1901년 서양인으로서의 물론 외국인으로 한라산을 처음 등정한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더구나 그는 두개의 다른 측량기구를 직접 들고 올라 한라산이 1950m임을 처음으로 측정, 기록을 남김으로써 한라산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에 탐사팀이 걸어가는 영실코스를 따라 한라산을 오르며 '수행굴'에서 두번 야영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한라산대탐사팀이 2001년 11월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수행굴을 찾아냈을 때 그속에서 그의 자취가 담긴 깨진 잉크병을 발견한 바 있다.

영실의 가장 빼어난 지역을 '겐테의 언덕'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만큼 겐테의 자취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라산은 이제 제주도민만의 산은 아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섬생물권보존지역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명산인 것이다. 이제 한라산도 세계를 향해 의미있는 손짓을 보낼 때이다.

/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만세동산과 선작지왓의 지질

어리목이나 영실에서 출발하여 등반로를 따라 한라산 정상을 향해 오르다 보면, 해발 약 1,600m에서부터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지형경사가 크지 않은 구릉지대를 만나게 된다. 이 구릉지대는 윗세오름(새끼오름-누운오름)을 경계로 북쪽 부분을 만세동산, 남쪽을 선작지왓이라 부르고 있다. 만세동산과 선작지왓은 각각 약 1km²의 면적을 차지하며, 이 지대 속으로 진입하게 되면 마치 산정에 형성된 평원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만세동산과 선작지왓의 지표에는 암회색의 다공질 현무암이 분포하는데, 암체들이 서로 연속적이지 않고 직경 약 1~5m 크기의 암괴상이어서 등반객을 포함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윗세오름의 정상부를 따라 오름이 연속된 방향으로 동일한 성분을 나타내는 화산각력으로 구성된 집괴암 노두가 흩어져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만세동산과 선작지왓의 암괴상 현무암은 윗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북쪽과 남쪽으로 각각 흘러 내려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윗세오름이 연속된 방향의 지각 속에 형성된 구조선을 따라 과거 화산활동이 발생하였으며, 분출된 다량의 용암은 만세동산과 선작지왓을 피복하게 되었고 송이(스코리아) 분출에 의해 윗세오름 산체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동일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현무암의 노출상태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암괴상으로 분포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무암 암괴들 사이 또는 일정부분 암괴들이 분포하지 않는 부분에는 역질 이암층이 노출되어

있으며, 윗세오름 대피소 인근 계곡이나 노루샘 약수터 남쪽 인근에서는 역질 이암층 아래에 담회색의 조면암이 분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만세동산과 선작지왓 일대의 지질은 하부에서부터 조면암, 역질 이암층, 현무암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하부의 조면암은 영실-백록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암체로 추정되며, 역질 이암층 또한 그 분포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질분포는 만세동산과 선작지왓 일대의 지표면에 형성된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는 습지대와 고지대에서는 흔치 않는 용천수(노루샘 등)가 나타나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만세동산과 선작지왓 일대는 강우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암괴상 현무암의 하부에 분포하는 역질 이암층은 매우 높은 함수율을 가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비(눈) 중에서 땅 속으로 함양된 많은 양의 물을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지표 근처에 함양된 물(지하수)은 중력에 따라 측방 및 수직방향으로 지층 속을 이동하여 점차 하류방향과 지하 심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일대는 지형경사가 완만하고 역질 이암층 하부의 저투수성 조면암의 분포에 따라 물(지하수)이 쉽게 측방 또는 수직 지하심부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저류되기 때문인 것이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지질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